



성경학교를 전도축제로! '와봐 콸앤씨'

다음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전화위복'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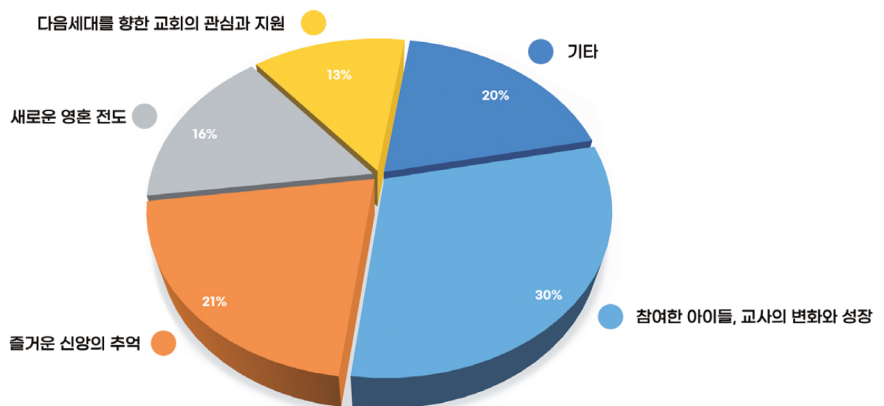
매년 여름, 성경학교는 지역 축제처럼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기독교 장년 세대는 '어린 시절 성경학교 때 전도되어 맺어진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학교는 한국 교회의 성장을 이끌어 온 핵심 동력입니다.

특히 올해는 성경학교가 다음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전화위복의 기회입니다. 잃어버린 3년, 이제는 물러설 곳조차 없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주일학교는 축소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없어 문을 닫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한국 교회 다음세대의 숨이 가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를 기대하며 교회의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래 여름이라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세대, 그리고 한국 교회의 다음세대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전국 교회의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교사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홀리키즈에서는 지난 4월 11일부터 5일간 교회학교 사역자 100명을 대상으로 성경학교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가장 기대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사역자들은 '참여한 아이들, 교사의 변화와 성장(30.4%)' '즐거운 신앙의 추억(20.9%)' 그리고 '새로운 영혼 전도(16.3%)'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Q. 성경학교를 통해 가장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위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사역자와 교사는 우리 다음세대가 무엇보다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성경학교는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추억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와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성경학교는 주제와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경학교의 결과나 부수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홀리키즈 성경학교는 주제와 내용의 초점을 모두 '영혼 구원'에 맞추었습니다. "애들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전도해야 하지 않겠니?"라며 교육하고 동기 부여하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올해 성경학교는 다음세대가 온몸으로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복음 축제의 현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교회 성경학교 기간 동안 진행되는 '예배'와 '공과', VR 콘텐츠로 복음을 경험하는 '주제 활동',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다중지능 큐티' 등의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교회에서의 성경학교 이후 21일간 진행되는 '가정 성경학교' 또한 복음의 핵심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도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교회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한 달 전부터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4주간의 '앤드류 트레이닝'을 준비했습니다. 4주간의 트레이닝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전도 대상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 잔치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안드레가 내일의 베드로를 세우는 성경학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요 1:39)."



주제해설 영상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안드레는 ‘와 보라(Come & See)’는 예수님의 초청에 주저함 없이 따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날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이 참 메시아 이심을 깨닫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 안드레는 즉시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와 보라’며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믿음의 반석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했던 ‘와 보라(Come & See)’의 초청은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오늘 이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다음세대들이 오늘의 안드레가 되어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 베드로에게, 의심하는 친구 베드로에게, 교회를 떠나 방향하는 친구 베드로에게 가서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와서 보라!’, ‘와 봐 봐봐! Come & See!’를 외치도록 합시다! 오늘의 안드레가 성경학교로 초청한 다음세대들이 내일의 베드로가 되어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고 부흥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합시다!